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미도리 전략 추진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외¹⁾

미도리 전략 추진을 위한 법 제도 마련

- 일본 농림수산성은 환경 부하 경감을 위한 정책 방침인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의 실현을 추진하는 법 제도를 창설하고자 함.
 - 2021년 8월 17일, 자민당 농림 관계 합동회의에서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하 미도리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방법’을 제시하였음.
 - 미도리 전략은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 이산화탄소 무배출화(zero emission) 및 화학농약 사용 50% 감소, 유기농업 비율 25%로 확대 등의 KPI(핵심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술 보급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함.
 - 그러나 이러한 KPI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해 식품 시스템 관계자(생산자, 식품 사업자, 기계·자재 제조사 등)가 연계하여 환경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인 틀을 창설하고자 함.
 - 농업의 환경부담 감소를 위한 에코 파머 인증·지원의 기준인 지속농업법(持続農業法) 등 기존 법률도 있지만, 미도리 전략은 205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농가와 지역은 대응 방침을 제출하고 현·시정촌이 인증하면, 세계 및 투융자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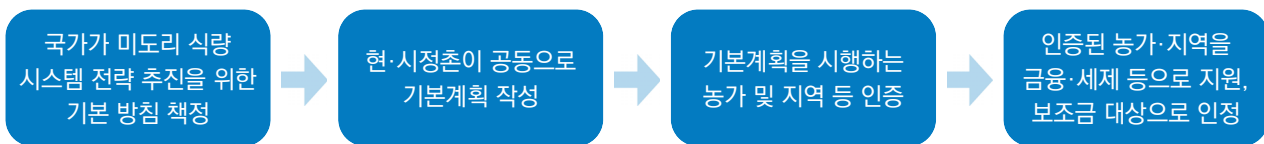
1)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みどり戦略推進で法制定へ-農水省”(2021.8.18.), 일본 농림수산성 “食品ロス削減に向けた商慣習見直しに取り組む事業者を募集します”(2021.8.2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1/08/210818-53320.php>, <https://www.agrnews.co.jp/news/index/20219>, <https://www.maff.go.jp/j/press/shokuhin/recycle/210820.html>).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 고액의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증받은 농가 및 지역은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임. 기술 연구 개발 등에 임하는 사업자도 국가가 인증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추진 교부금도 창설하여, 지속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 선진지구 창출 및 친환경적인 재배기술과 첨단기술을 조합한 재배체계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유기농업의 단지화, 판로 확대 등도 지원함.

| 새로운 법을 기반으로 한 생산자 지원 절차 |



□ 식품 손실 감소를 위한 상관습 재검토 사업자 모집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 손실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30일을 ‘전국 상관습(商慣習) 재검토의 날’로 지정하고, 납품기한 완화 및 유통 기한 표기 변경 등 상관습 재검토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2021.8.20.~10.30.)함.
- **(납품기한 완화)** 유통 기한의 1/3 기점을 넘기지 않은 상품만 소매업체에 납품이 가능한 관례 때문에 유통 기한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음. 납품기한 완화를 통해 식품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통 기한 표기 기준 변경)** 대부분의 상품 유통 기한은 연·월·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소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보다 유통 기한이 짧으면 납품을 받지 않는 관례가 있어 식품 손실이 발생함. 유통 기한을 연·월 또는 일정 날짜 단위로 표기²⁾함으로써 식품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 손실의 감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중요 요소로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식품 사업자의 SDGs 달성에 대한 대응이 소비자, 종업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관습 재검토를 통한 식품 손실 감소는 SDGs의 중요한 대응 중 하나임.

2) 예를 들어, 10일 단위로 통일하면 재고 상품과 납품 상품 유통 기한이 같아 납품이 가능해지며 식품 손실이 감소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 또한, 식품 손실 감소를 추진하는 식품 사업자가 이러한 대응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사업자의 상품, 매장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해 식품 손실 감소가 더욱 촉진될 것이 기대됨.
- 이러한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은 상관습 재검토를 추진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대상 사업자를 공개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8.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20년 지구온난화 영향 조사 보고서³⁾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8월 27일, 2020년 지구온난화 영향 보고서⁴⁾를 발표하였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이는 고온 피해 등과 그에 대응한 기후적응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구온난화 영향과 고온 장애 등의 영향,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하여 보급지도원 및 행정기관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해 벼, 과일, 채소, 화훼, 축산 등이 받은 영향과 각 도도부현의 온난화 적응을 위한 대응 상황 등을 정리함.
 - 온난화 보고서에 명시된 영향, 적응대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각 도도부현에서 적응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응이 추진될 것을 기대함.
- 2020년에는 높은 기온이 지속되어 연평균 기온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았음. 특히 따뜻한 겨울로 인해 동·서 일본에서 기록적인 고온, 동해 부근에서는 기록적으로 적은 적설량을 보였으며, 2020년 7월 호우 등으로 인해 7월에는 동·서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일조량이 부족하였음.

3)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2年地球温暖化影響調査レポート」の公表について”(2021.8.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nousan/kankyoo/210827.html>).

4) 온난화 보고서는 농림수산성 기후변화 대응계획(2015년 8월 책정, 2018년 11월 개정)을 기반으로 한 대응의 일환임.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 발생 보고가 많은 농축산물 영향과 대응책 시행 현황 |

구분	영향	대응책																				
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수기(이삭이 나오는 시기) 이후 이상고온으로 인해 미숙립(未熟粒)이 다수 도도부현에서 발생 • 따뜻한 겨울로 인한 총해 다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0</th> <th>2019</th> <th>2018</th> <th>2017</th> </tr> </thead> <tbody> <tr> <td>미숙립 발생</td> <td>33</td> <td>36</td> <td>31</td> <td>23</td> </tr> <tr> <td>해충 피해</td> <td>19</td> <td>13</td> <td>7</td> <td>9</td> </tr> </tbody> </table>	구분	2020	2019	2018	2017	미숙립 발생	33	36	31	23	해충 피해	19	13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숙립 발생 억제를 위한 물관리, 적기 이삭·수확 • 고온 내성 품종 도입(경지면적 전국 약 15만 3천 ha, 전년 대비 1만 6천 ha 증가, 고온 내성품종 비율 11.2%) • 이삭 거름 등 비배관리 철저 					
	구분	2020	2019	2018	2017																	
미숙립 발생	33	36	31	23																		
해충 피해	19	13	7	9																		
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 비대기 이후의 고온으로 인해 착색 불량·착색 지연, 부피(浮皮) 등 발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0</th> <th>2019</th> <th>2018</th> <th>2017</th> </tr> </thead> <tbody> <tr> <td>포도 착색 불량·착색 지연</td> <td>20</td> <td>20</td> <td>22</td> <td>25</td> </tr> <tr> <td>사과 착색 불량·착색 지연</td> <td>10</td> <td>7</td> <td>6</td> <td>8</td> </tr> <tr> <td>온주밀감 부피</td> <td>9</td> <td>10</td> <td>13</td> <td>13</td> </tr> </tbody> </table>	구분	2020	2019	2018	2017	포도 착색 불량·착색 지연	20	20	22	25	사과 착색 불량·착색 지연	10	7	6	8	온주밀감 부피	9	10	13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색 불량 품종 및 착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황녹계열 품종 도입, 착과 관리(적과, 피복) • 부피(浮皮)현상 대응으로 식물 성장 조정제 활용
	구분	2020	2019	2018	2017																	
포도 착색 불량·착색 지연	20	20	22	25																		
사과 착색 불량·착색 지연	10	7	6	8																		
온주밀감 부피	9	10	13	13																		
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 고온에 의한 착과 불량 및 생육 불량 등 발생 • 꽃눈분화 시기에 고온으로 인한 꽃눈분화 지연 발생 • 병충해 발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0</th> <th>2019</th> <th>2018</th> <th>2017</th> </tr> </thead> <tbody> <tr> <td>토마토 착과 불량</td> <td>17</td> <td>14</td> <td>14</td> <td>12</td> </tr> <tr> <td>딸기 꽃눈분화 지연</td> <td>15</td> <td>11</td> <td>6</td> <td>3</td> </tr> </tbody> </table>	구분	2020	2019	2018	2017	토마토 착과 불량	17	14	14	12	딸기 꽃눈분화 지연	15	11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화·착과 부실 및 불량 과실에 대한 대응으로 차광 자재 활용, 분무냉방 • 눈꽃 분화 안정·촉진을 위한 신품종 도입 및 차광 					
	구분	2020	2019	2018	2017																	
토마토 착과 불량	17	14	14	12																		
딸기 꽃눈분화 지연	15	11	6	3																		
화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에 의한 개화기 변동 및 기형 발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0</th> <th>2019</th> <th>2018</th> <th>2017</th> </tr> </thead> <tbody> <tr> <td>국화 개화기 변동</td> <td>18</td> <td>19</td> <td>23</td> <td>17</td> </tr> </tbody> </table>	구분	2020	2019	2018	2017	국화 개화기 변동	18	19	2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 안정을 위한 그늘 활용 및 전조 재배를 통한 일장(日長) 조정 										
	구분	2020	2019	2018	2017																	
국화 개화기 변동	18	19	23	17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고온에 의한 유량·유성분 저하 및 폐사 발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0</th> <th>2019</th> <th>2018</th> <th>2017</th> </tr> </thead> <tbody> <tr> <td>젖소 폐사</td> <td>17</td> <td>15</td> <td>17</td> <td>15</td> </tr> <tr> <td>젖소 유량·유성분 저하</td> <td>12</td> <td>14</td> <td>14</td> <td>16</td> </tr> </tbody> </table>	구분	2020	2019	2018	2017	젖소 폐사	17	15	17	15	젖소 유량·유성분 저하	12	14	1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송풍·환기팬 설치 및 분무냉방 도입 					
	구분	2020	2019	2018	2017																	
젖소 폐사	17	15	17	15																		
젖소 유량·유성분 저하	12	14	14	16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9.0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3 2020년도 일본형 직불제 시행 현황⁵⁾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8월 31일, 2020년도 일본형 직불제(다원적 기능 지급 교부금, 중산간 지역 등 지급 교부금, 친환경농업 직접지급 교부금) 시행 현황을 발표함.
- **[다원적 기능 지급 교부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발휘되도록 농업인 등으로 조직된 단체의 지역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
 - **(1. 농지 유지 지급 교부금)** 수로, 농도 등의 기초적인 보전 활동 등을 지원, 1,443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6,233개 조직, 2,290,820ha 지원함.
 - **(2. 지원향상 지급 교부금, 지역자원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활동 지원⁶⁾)** 수로, 농도 등의 간단한 보수, 농촌환경 보전 활동 등을 지원, 1,301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0,815개 조직, 2,042,052ha 지원함.
 - **(3. 자원향상 지급 교부금, 시설 수명연장)** 농업용 시설 수명연장을 위한 활동 지원, 901개 지역(기초자치단체), 11,116개 조직, 757,628ha 지원함.

| 농지 유지 지급 교부금 추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지역 수	1,325	1,404	1,422	1,429	1,434	1,437	1,443
대상 조직 수	24,885	28,145	29,079	28,290	28,348	26,618	26,233
인정 면적(ha)	1,961,681	2,177,554	2,250,822	2,265,742	2,292,522	2,274,027	2,290,820

| 지원향상 지급 교부금-지역자원 질적 향상 지원 추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지역 수	1,247	1,271	1,286	1,284	1,287	1,295	1,301
대상 조직 수	21,299	22,731	23,279	22,299	22,223	20,923	20,815
인정 면적(ha)	1,792,816	1,930,358	1,996,037	2,001,220	2,023,175	2,013,793	2,042,052

5)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2年度日本型直接支払の実施状況について”(2021.8.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maff.go.jp/j/press/nousin/nihon/210831.html>).

6) 농업인 등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단체를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 자원향상 지급 교부금-시설 수명연장 추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지역 수	831	873	879	869	871	885	901
대상 조직 수	10,280	11,471	11,880	11,586	11,616	11,134	11,116
인정 면적(ha)	550,446	636,996	676,408	689,393	710,587	741,169	757,628

■ **[중산간지역등 지급 교부금]** 평지 대비 농업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보조를 통해 농업 생산활동을 유지하여 다원적 기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산간지역 직불금은 마을 등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직불금을 지급함.

- 990개 지역(기초자치단체), 23,985건의 협정, 638,911ha 지원함.

■ **[친환경농업 직접지급 교부금]** 농업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서 화학비료 및 농약 50% 이상 감소,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을 지원함.

- 841개 지역(기초자치단체), 3,155건⁷⁾, 80,789ha 지원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9.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2020년도 식량 자급률·자급력 지표 외⁸⁾

□ 2020년도 식량 자급률·자급력 지표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8월 25일, 2020년도 식량 자급률·자급력 지표를 발표함.

〈식량 자급률 지표〉

■ **[식량 자급률 지표]** 일본 국내에서 생산 및 조달하는 식량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일본에서는 식량 국내 생산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공표하고 있음.

7) 직접지불 교부금 시행 건수를 말함.

8)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2年度食料自給率・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2021.8.25.), 일본농업신문 “新規就農に1000万円支援 財源は自治体と折半 農水省22年度”(2021.9.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kanbo/anpo/210825.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23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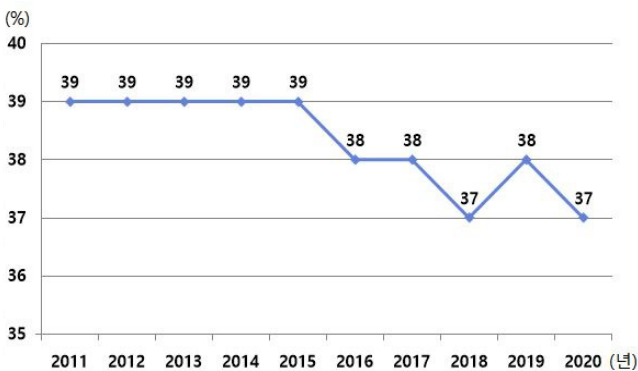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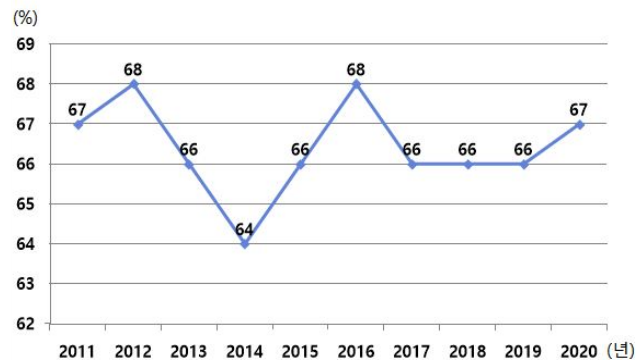
- **[칼로리 기준]**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설탕, 전분, 유지류 등의 소비가 감소, 쌀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밀 작황이 좋았던 2019년에 비해 단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p 낮은 37%임.
 - 축산물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품목별 자급률(사료자급률을 반영하지 않은 중량 기준)은 쇠고기(35% → 36%), 돼지고기(49% → 50%), 닭고기(64% → 66%), 우유·유제품(59% → 61%) 모두 상승하였음. 사료 자급률은 2019년도와 동일한 25%임.
- **[생산액 기준]**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 과일 등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어패류,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9년도보다 1%p 증가한 67%임.

| 최근 10년 식량 자급률 추이 |

칼로리 기준



생산액 기준



〈식량 자급력 지표〉

- **[식량 자급력 지표]**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 식량 생산 능력이며, 국내 생산 식량만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1인 1일 공급칼로리를 계산한 것으로 일본은 잠재 식량 생산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음.
 - 쌀·밀 중심 경작의 경우 농지면적 감소로 인해 2019년도 대비 2kcal 감소한 1,759kcal임. 서류 중심 경작의 경우 농지면적 감소 및 감자 단위 수확량 감소, 노동력(연 노동시간) 감소로 인해 2019년 대비 62kcal 감소한 2,500kcal임.
 - 2020년도 식량 자급률은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쌀·밀 중심 경작은 추정 에너지 필요량⁹⁾(2,168kcal/인·일)을 하회하며, 감자류 중심의 경작에서는 이를 상회함.

9) 추정 에너지 필요량이란 그때 체중을 유지하기(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음) 위해 적당한 에너지 추정치를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0.): 일본

□ 신규 취농 지원 재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도 신규 취농 지원을 재검토함.
- 현행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 등을 개선해 초기 투자를 최대 1,000만 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임. 하지만 지원금이 기존 사업보다 증가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 경영 개시 3년 차까지 시설 및 기계 등에 투자했을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최대 1,000만 엔을 무이자 용자 가능하며, 그 상환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임.
- 현재 취농 직후의 농가에게 지원 가능한 정책으로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이 있음. 2022년도 이후, 기존 사업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지원은 불가능함.
 - 취농 1~3년 차는 연간 150만 엔, 4·5년 차는 120만 엔을 국비 지원하며, 최대 690만 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신규 취농인 지원을 1,000만 엔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의 국가에서 전면 지원하던 구조에 지자체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음.
 - 지자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농업 진흥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여, 신규 취농인 지원에 지역 차 발생이 우려됨.
 - 농림수산성은 지방 교부세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무성과 논의할 예정임.

□ 신규 취농 지원대책 주요 재검토 사항

〈현행〉	〈202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경영개시형) - 경영 개시 시 초기 경영 확립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690만 엔 1~3년 차: 연간 150만 엔 4, 5년 차: 연간 120만 엔 ● 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개시 3년 차까지 투자를 무이자 용자하여 상환금을 지원 ※ 일부는 정액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있음. ●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00만 엔 ※ 정액 조성은 이 중 월 13만 엔·3년이 상한 ● 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1/2, 지역 1/2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9.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